

천연 자원 뷰티 · 향장 제품 개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선정... 도내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해

전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화장품 기업 등 바이오뷰티 기업의 매출상승을 돕기로 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박순중 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1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시·도간 자율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원은 올해 신규과제에 도내 화장품 기업인 (주)하이슬, (주)마크로케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비즈니스협력형(R&D)' 분야의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 제품 개발 프로젝트

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이들 기관은 총 3년간 과제를 수행하며, 매년 국비 약 5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전북-충북 경제협력권의 천연 자원식물을 발굴하게 된다. 또, 천연뷰티 소재의 원료 산업화와 가능성 화장품 제품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그간 전북 뷰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뷰티 개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과제 선정으로 도 바이오뷰티산업 발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이미 2017년에 바이오뷰티 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과제 선정으로 바이오뷰티 분야에서 선도하는 전주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주 중앙상가에서 열려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주 중앙상가시장 편이 25일 중앙상가 주차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전북도 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가요제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그맨 황기순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초청가수인 김혜연·유현상·진해성·헤미의 축하공연, 예선을 거쳐 선발된 시민들의 노래자랑 등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주상복합건물로 이루어진 전주 중앙상가는 의류와 귀금속, 패백용품 등을 고루 갖춘 전통시장으로, 상가 입구에 주차장이 완비되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으며 인근에 복원된 노송천이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주 중앙상가시장 편이 25일 중앙상가 주차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 자립 전주

시, '에너지디자인 3040' 민간실천사업 전개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자립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정책에 따라 강좌와 공모전을 연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의 실현을 위해 올해 에너지 생활기술 강좌인 '내손으로 에너지하다'와 도심의 초록공간을 발굴하고 중요성을 전파하는 초록도시 공모전인 '좋은초록 있으면 소개시켜줘' 등 2차년도 민간실천사업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 상반기 '에너지 생활기술 강좌-내손으로 에너지하다'를 총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강좌 주제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재료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기청정기 만들기 △녹색케튼과 옥상녹화의 방법 △기존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방법 △옥상에 하얀 옷을 입혀 실내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칠하기 등이다.

시는 모든 강좌를 시민들이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제작한 제품은 각 가정으로 가져가 생활에서 사용토록 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열심 저감을 위한 작은 물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원 및 옥상텃밭, 쌈지 녹색공간 등 도심 온도 상승 억제효과를 가져오는 초록공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초록도시 공모전-좋은초록 있으면 소개시켜줘'도 진행한다.

올해 공모전은 기존 마당과 옥상 등을 활용한 녹지 정원과 텃밭 등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와 실내 정원 등 실내 초록공간으로 공모 분야를 확대했다.

에너지 생활기술 강좌는 각 강좌별로 선착순 20명 이내로 모집하며, 오는 28일 첫 강좌가 열린다. 강좌에 참석하기 원하는 시민들은 강좌 3일전까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1-2959, 2968)로 신청하면 되며, 복수 강좌에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초록도시 공모전의 경우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가 6월부터 참가작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디자인 3040'은 전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각각 11%와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에너지계획이다. /기동취재반

전주국제영화제 · 전주한지문화축제 대비 전주시, 민관합동 일제대청소 실시

전주시가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22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치르기로 했다.

시는 25일 전주시 산하 공무원과 환경관리원, 자생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 및 전주한지문화축제 대비 깨끗하고 청결한 손님맞이를 위한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시민들은 오는 5월 3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장이자 개막식이 열리는 전주동 주변과 영화의 거리 등 행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비했다.

또한, 오는 5월 5일 개막하는 전주한지문화축제의 행사장이자 영화제 기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

이 예상되는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을 중점 정비하고,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원통밀집지역, 이면도로 등에 적치된 쓰레기도 깨끗히 수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10일간을 전주국제영화제 대비 사전 대청소 주간으로 설정하고, 환경관리원 및 공공근로 등 고용 청소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손님맞이 도심 환경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영화제 기간 중에는 주요 행사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상시 근무자를 배치해 행사장 주변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대비 청소상황실 및 기동처리반 운영한다. /기동취재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정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이 일반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편의를 위해 2000여개 쓰레기종량제 지정판매소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25일 시설공단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덕진구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이후 종량제봉투를 취급하지 않거나,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폐업 또는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에서는 일과시간 이후, 휴일 등 연중 아무 때나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종량제봉투 주문 및 고장상계좌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기동취재반

전주서 여중생 수년 동안 집단 학교폭력 당해

등급생 15명에게... 피해 여중생 정신과 치료 · 홈스쿨링

전주 한 중학교에서 수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중생이 나타나 경찰과 학교측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25일 전주덕진경찰서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여중생 A(15)양은 다수의 등급생으로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은 한 등급생이 계단에서 밀어발목이 부러지고 학용품으로 폭행당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

다.

이 같은 학교폭력은 15명의 학생으로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됐다.

A양은 초교시절부터 시작된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를 피해 3년 동안 홈스쿨링(자택학습)을 했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오래도록 학교폭력에 시달렸는데 가해학생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딸이 불안에 떨고 있어 앞으로 정상적

인 학교생활이 가능할지 걱정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사태에 해당 학교는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정황을 파악한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소송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